

어머니 마리아, 기적을 품고 살아가는 고통

누가복음 1:26 - 38

마리아는 처음 천사가 찾아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기적을 품고 고통을 지나가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갖게 될 아이가 가장 위대하게 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있는 분, 거룩하신 여호와와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큰 기적을 가슴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와 기적을 받은 것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에게 고통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즉 죽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이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기적과 은혜를 품고 고통을 지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리아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적과 은혜를 품고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영광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죽게 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세상이 주는 핍박과 환란 앞에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도 겪고 손해도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의 몇배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특권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올 고통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시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에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